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향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화상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 미술 수업지도 방안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박 지 원

자화상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 미술 수업지도 방안 연구

김 향 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박 지 원

인 준 서

박지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 등을 조형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통합적 정서활동이다.

미술은 인류의 문화를 반영하여 기록하고 전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미술교육은 미술전문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개개인의 잠재적 소질을 발견하고 인간성의 성장을 돕는데 근본 방향을 두고 있다.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향유할 수 있는 태도와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과 교육의 목적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자신이 누구이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자아 정체성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내면화하고 형성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술과에서의 자화상 창작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혼란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전환시키고 승화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자아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도록 도와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각자의 실생활을 반영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자화상 수업 방안을 구안하였다. 도입단계에서는 화가들의 다양한 자화상 작품을 감상하며 그들의 작품 속에 외양 뿐 아니라 내면이 반영되어 있음을 깨우치고, 이미지는 문자와 달리 상황과 생각을 그림

으로 재현하는 방식임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를 인지한 후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자화상 제작활동을 한다. 먼저 공통 과제를 수행하여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소재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활동을 하는데, 선택활동은 주제와 표현방식을 달리한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여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자신의 모습과 성격을 발현해 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과 연결지어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주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하였다. 제작활동 후에는 자아 형성의 작업으로 동료들과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여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사고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본 수업은 특히, 전문적인 기능 강조보다는 청소년 자신에게 의미 있는 미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라는 특정 시기에 걸맞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또 완성된 작품에 대한 성취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돋워주고 이로부터 도출된 개선점은 장래 청소년들의 자아성찰과 사고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아성찰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자화상 창작 교수-학습 활동은 향후 미술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내용 및 방법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자화상의 유래와 의의 ····· 5

1) 자화상의 개념과 역사 ····· 5

(1) 서양의 자화상 유래 ····· 6

(2) 한국의 자화상 유래 ····· 8

2) 작가들의 자화상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 9

(1) 자신에 대한 심취-윤두서, 렘브란트 ····· 10

(2) 고양된 자아-뒤러, 르브룅 ····· 12

(3) 죽음 앞 자아-피카소, 이중섭, 김명국 ····· 13

(4) 풍경 속 자아-이쾌대, 장욱진 ····· 14

(5) 여성의 자아-프리다, 천경자 ····· 16

2. 청소년기의 특성 ····· 18

1)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 20

2)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 21

3)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 22

Ⅲ. 청소년의 자아표현과 관련된 현행 교과서 분석 ····· 24
1. 미술과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 ····· 24
2. 중학교 개정 미술교과서 분석 ····· 27
1) 교학사 ····· 28
2) 교학연구사 ····· 29
3) 지학사 ····· 31
4) 미진사 ····· 32
5) 두산동아 ····· 34

Ⅳ. 자아 형성을 위한 자화상 창작 수업 지도 방안 ····· 36
1. 청소년의 자화상 창작활동의 교육적 가치 ····· 36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자화상 교수-학습법 ····· 39
1) 학습자 특성 진단 ····· 39
(1) 일반적 특성 ····· 39
(2) 학습양식 ····· 40
2) 차시별 지도계획 ····· 41
3) 교수-학습의 도입 ····· 43
4) 교수-학습의 전개 ····· 47
(1) 나의 내면의 모습 ····· 48
(2) 나의 상징 ····· 50
(3) 나의 일촌 ····· 52
5) 정리 및 평가 ····· 54

Ⅳ. 결론 및 제언 ····· 58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 ····· 23
〈표 2〉 교학사 교과서 분석 ····· 24
〈표 3〉 교학연구사 교과서 분석 ····· 26
〈표 4〉 지학사 교과서 분석 ····· 27
〈표 5〉 미진사 교과서 분석 ····· 29
〈표 6〉 두산동아 교과서 분석 ····· 30
〈표 7〉 단계별 지도계획 ····· 31
〈표 8〉 교수-학습의 도입 예 ····· 37
〈표 9〉 활동① 나의 내면의 모습 ····· 38
〈표10〉 활동② 나의 상징 ····· 40
〈표11〉 활동③ 나의 일촌 ····· 42
〈표12〉 자가평가 ····· 43
〈표13〉 동료평가 ····· 44
〈표14〉 교사평가 ····· 47

도 판 목 차

〈도판1〉 렘브란트, 젊은 날의 자화상(유채/30.9×38cm/1629년 작)

〈도판2〉 렘브란트, 사도 바울로 분장한 렘브란트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91×77cm/1661년 작)

〈도판3〉 윤두서, 자화상(수묵담채/38.5×20.5cm/18세기)

〈도판4〉 뒤러,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목판에 유화/67×48.7cm/1500)

〈도판5〉 르브룅,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자화상(캔버스에 유채/98×70cm/1782년 작)

〈도판6〉 피카소, 자화상(종이에 왁스 크레용/625.7×50.5cm/1972년 작)

〈도판7〉 이중섭, 자화상(종이에 연필/48.5×31cm/1955)

〈도판8〉 김명국, 죽음의 자화상(隱士圖)(지본수묵/60.6×38.8cm/?)

〈도판9〉 이쾌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0×72cm/1948~49년경)

〈도판10〉 장욱진, 길 위의 자화상(종이에 유채/14.8×10.8cm/1951)

〈도판11〉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종이에 채색/43.5×36/1977)

〈도판12〉 칼로, 내 마음 속의 디에고(유채/76×61cm/194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시대와 상황마다 다르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는 특별한 교육기관 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고 모방하는 본원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근대사회에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대에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식이 곧 가치이고 중요 자원이므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처럼 교육이 시공간의 흐름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잘 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복지수'나 '웰빙(Well-being)' 같은 주제가 개인과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추구한다. 또 그러한 바람만큼 교육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육현실을 보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피교육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한국사회학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학술 심포지엄' 발표 자료를 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 청소년은 학업성취 부문은 최상위권에 해당하나 주관적 행복감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통계청의 '200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46.5%에 달했다. 중학교 1학년은 41.7%, 고등학교 3학년은 54.2%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1)]

이런 현상은 학교 교육을 과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교육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 학교, 일류 기업에 입적하기 위한 맹목적이고 도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이 개인의 행복감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라는 기대는 무리다. 현대의 학교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바른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인성계발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진단은 인간의 본원적인 성질에 따르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성적 존재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룬 인간인 것이다. 감정만을 내세우다 보면 플라톤의 우려처럼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이성만을 추켜세우다 보면 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인간미를 상실하기 쉽다. 이 두 가지가 내부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기형적인 모습으로 남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는 이성의 힘이 크게 작용한 만큼이나 감성의 힘도 커져야 건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2)]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대표적인 학문이 미술이다. 미술이라는 매개체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개인은 한발 더 나아가 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통합적인 활동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미술 교육은 우리의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자아를 표현하는 미술 창작활동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느끼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표현하도록 한다. 이런 활동들은 개인의 감성과 자기 표현력을 개발시켜주고.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감각과 직관력을 길러준다.

---

1) 이원희, 「교육에서 행복찾기」 중부일보 오피니언. 2010년1월22일자.
2) 손정숙, 『예술과 웰빙』 (서울: 만남출판, 2004) p.15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화상 창작활동 수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소재로 하는 자화상 창작활동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화상 창작활동 수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우리나라와 서양의 자화상 작품을 통해 자화상의 역사와 의미를 안다.
2) 이미지는 문자 언어와 달리 마음과 상황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임을 이해한다.
3) 자신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을 설득시킨다.
   ① 자화상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지금의 나와 연계성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한다.
   ② 의미 있는 타자들을 인식한 자화상 그리기를 통해 주변세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아정체감 확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4) 표현기술에 대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미술도구로 나의 감성을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두 번째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고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도에 걸맞는, 학생들이 미래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다지고 활발한 교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연구한다. 이와 같은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동서양의 자화상의 개념과 역사를 알아보고 자화상의 유의미한 역할을 많은 화가들이 남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본다.
2) 청소년기의 성장과 미술표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적절한 미술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모색한다.
3)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자화상 지도의 교수-학습 모델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선 연구자들의 저서와 논문, 학술지 등과 주제에 부합되는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근거로 자화상 창작활동의 의미와 청소년기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화상의 유래와 의의

본 장에서는 자화상이라는 장르가 갖는 교육적 유의미성을 알기 위해 자화상이 인류미술의 역사에서 어떤 경로로 발전되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1) 자화상의 개념과 역사

자화상은 초상화의 하나로 화가가 자기 자신을 모델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자화상(自畵像, Self-Portrait)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끄집어내다, 발견하다, 밝히다(proptahere)'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초상화를 그리다(Portray)'라는 용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자아라는 의미의 self와 portrait가 합쳐진 Self-Portrait(자화상)은 간단하게 '자기를 끄집어내다, 밝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3)]

단어의 어원과 같이 자화상은 화가의 외양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의식과 정신성까지도 반영되어 있다. 작품 속 인물의 모습을 보고 그의 성격이나 개성, 당시의 감정, 시대 상황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화상을 보는 행위를 자서전을 읽는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

3)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1999) p.390.

“화가는 평생 자기 자신만을 그린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거시적 관점에서는 화가가 그린 모든 그림이 작가 내면의 표출의 장(場)임을 함의한다. 그러나 많은 것 중에서 자신을 그리는 자화상은 자기직시를 통해 마음의 내밀한 구석까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해소시켜준다. 화가는 오랫동안 자신을 음미하고 또 표현한다. 그것은 자기만족의 표현을 넘어서서 ‘나는 누구인가’하는 진지한 성찰의 산물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동서양 모두 이미 최초의 동굴벽화에서부터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고대에는 솜씨 좋은 조각가들이 기록을 할 때나 무기 따위를 장식할 때 자신의 모습을 정교하게 조각해 놓았다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독립된 자화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인류 문명이 탄생함과 동시에 인물, 그 중에서도 ‘자신’이 미술품의 주체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동서양의 시대의 변천과 함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왔다. 환경과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자화상도 함께 발전되어 온 사실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탐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본원적인 일임을 증명한다.

(1) 서양의 자화상 유래

자화상의 시초는 중세의 미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설교문, 찬송가, 기도문 등을 일일이 손으로 쓰고 그린 필사본에는 주문자나 기증자의 초상 이외에도 가장자리에 그려진 필사가나 화가의 초상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이런 표식들이 개인적인 특징이나 자의식이 거의 배제된 채 서명을 대신하여 그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화가가 스스로를 그렸다는 점에서 초상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율성을 갖고 하나의 표현 대상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이 시기에 자화상이 양적으로 많아지고 급성장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 자본이 형성되면서 개성·합리성·현세적 욕구를 추구하는 반(反)중세적 정신 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모든 다양한 표현과 작품에서 인간의 본성을 그 주제로 삼게 되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바로 미술 분야였다. 미술은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위상을 통찰할 뿐 아니라 신과 그 피조물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재능과 가치를 지닌 학문으로 여겨졌다.[4] 따라서 화가들은 자화상 제작을 토대로 화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5]

서양의 자화상의 발달 양상을 볼 때 화가들이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욕구이다. 화가들은 자신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내면적 욕망을 품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마음과 상황을 그림에 표현함으로써 욕구를 해소한다. 이것은 자기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나를 알리는 도구가 된다. 내 존재를 후세에 남길 수도 있다. 둘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화가들이 스스로 가장 경제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모델을 화실에 앉혀두어야 했는데, 넉넉지 못한 경제사정은 화가로 하여금 자유롭게 작업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거울을 통해 무제한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이라는 모델은 그림 작업에 제격이었다. 셋째는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앙리 팡탱 라투르(Henri Fantin-Latour, 1836~1904)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모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이점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정확하고, 화가의 말을 잘 따르며,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6]

---

4) 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www.britannica.co.kr (검색일자: 2010년 3월 16일)
5)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서울: 예경, 1996) p.83.

(2) 한국의 자화상 유래

한국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개인은 거대한 공동체의 일부에 불과했다. '개인'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기(17~18세기)에 실학사상이 대두되어 인간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면서이다. 자화상이 이 때 탄생한 것도 이런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 당시 한국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왕실에 의해 주문제작 된 초상화가 대부분이었고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사회적인 위치가 보장되어야 했다.[7] 그러다보니 전통회화에서 현재 남아있는 자화상 작품은 사대부 출신 화가 윤두서와 문인화가 강세황의 것 이외에는 아주 드물게 전해지고 있다.[8] 이러한 경향은 서양에서 자화상이 사회적 신분의 향상과 자아인식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제작되었던 것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동양에서는 "초상화에서 얼굴을 묘사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신을 묘사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전신사조(傳神寫照)라 하였다. 이렇듯 초상화, 특히 자화상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이 무척 생생하게 드러나 있으며, 동시에 주체의식의 성장단계를 엿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자화상 역시 시대상황에 따라 그 경향이 함께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왕조가 몰락하고 한일합병이 된 1910년대는 기존의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가운데 최초로 서양의 유화기법이 도입되어 많은 자화상들이 그려진다. 사회적인 어려움을 딛고 선 한 사람의 자아로서 화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국 미술이 그보다 좀 더 성숙한 1930년대는 한국인의 기호와 풍토에

---

6) 앨릭잰더 스터지스(Alexander Sturgis), 『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7) p.229.
7) 중국 한대의 사대부에 의해서만 그려졌던 경향과도 흡사하다.
8) 유수정, 「자화상을 통한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석사논문, 2003), p.12.

맞게 서민적이고 향토적인 화풍이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적 인상주의의 면모가 부각된 인물 작품들이 속속 선보인다. 이는 일본화풍의 이입으로 내면적인 인격이나 정신성까지 드러내고자 했던 인물표현의 전통이 희미해지고 일본적 감성을 반영한 장식취향의 감각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탓이다. 그러나 초상화, 인물화의 전통이 몇몇 화가에 의해서 간신히 맥을 이어와 최근 전통초상에 있어서 제작기법의 현대적인 재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양식적 변천을 거듭한 한국 미술의 변천사를 몇 가지 개념으로 묶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인물화 안에 각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통미와 한국인의 정체성이 다양한 표정으로 나타나있다는 점이다.[9)]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은 각각의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화상의 발달사(史) 간에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사회적 여건이 허락할 때, 둘째로 자아개념이 확실할 때 자화상 제작이 원활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자화상도 환경과 분리되어 만들어진 것은 없다. 사회에서 인간의 자의식의 표현 욕구가 허용되는 때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 자화상의 외양 묘사가 내면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 자화상은 정체성이 발달함과 행보를 같이 한다.

2) 작가들의 자화상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작가들은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도와 취지를 갖고 자화상을 제작해 왔다. 다음의 분류는 작품의 제작년도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공

9) 유수정, 전게서, p.13.

통되는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 나누어 본 것이다.[10)]

(1) 확고한 자아-윤두서, 렘브란트

17~18세기, 사회적 변화기에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자화상으로 남긴 화가로, 서양의 렘브란트(Harlnensz van Rijn Rembrandt, 1606~1669)와 한국의 윤두서(尹斗緖, 1668~1715)를 볼 수 있다.

렘브란트는 63년 생애 동안 자화상을 60여장이나 남겼는데, 그에게 있어 자화상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적 발자취를 더듬는 이정표(里程標)가 되고 있다. 렘브란트는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고, 부모의 지지와 기대 속에 성장했다. 실제로 총명하고 패기 있던 렘브란트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도 순적한 길을 밟아 젊은 나이에 가장 성공한 화가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화가가 된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의 회화가 성숙함에 따라 당시의 대중적 기호보다는 내면적인 것, 인간성의 깊이에 끌리게 되면서 종교적·신화적 소재나 자화상을 주로 그리게 된다. 그리고 점차 세속적 명성에서 멀어진다.

화가로서, 인간으로서, 렘브란트 인생의 절정과 말년이 두 그림에 담겨 있다. 〈훈장을 단 젊은 날의 자화상(1629)〉(도판1)과 〈사도 바울로 분장한 렘브란트 자화상(1661년)〉(도판2) 사이에는 30여년의 세월이 묻어 있다. 자신감에 찬 잘생긴 젊은이가 군살이 붙은 늙은이로 변한 것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금속에 반사된 빛을 정확하게 재현해내던 젊은 시절의 예리한 붓질은 오묘한 빛을 풀어내는 두터운 붓질로 대체되었다. 이전과 같은 화려함과 패기는 없으나, 대신 당당한 원숙기의 화가가 유감없이 묘출(描出)되고 있다. 그의 그림은 예술가로서 터득한 현명함과 삶 속에서 축적된 불굴의 의지는 물론 시

10) 기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련이 가져온 주름진 자취마저도 생생히 보여준다.

한편, 유럽이 근대기에 접어들던 그때에 16세기 조선에서도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조선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우리나라 자화상의 백미로 꼽히는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자화상이 있다. 윤두서는 당시 새로운 회화관과 화법을 제시한 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자로, 화가인 동시에 시대의식을 가진 당대의 지식인이었으며 사상가였다. 그러나 당시 극심하였던 당쟁 속에서 몰락해 버린 남인에 속했던 그는 일찍이 정치적 출세와는 담을 쌓아야 했다. 이러한 좌절과 더불어 그의 나이 22세 때는 부인을 잃고 연이은 친척들의 초상 속에서 불운한 30대를 보낸다. 이러한 배경이 어쩌면 그로 하여금 여러 방면의 학문에 관심을 돌리게 하고 그림을 천시하던 그 시대에 그것에 열중하여 새로운 화풍을 가져오게 한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른다.

화면을 얼굴로 가득 메운 윤두서의 〈자화상〉(도판3)을 보면, 먼저 그 풍모에 압도당한다. 풍만한 얼굴에 정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생생한 눈빛, 한 올 한 올 사실적이면서 불타오르는 수염은 마치 살아있는 얼굴을 보는 듯 매우 강렬한 느낌을 준다. 이토록 철저한 사실적 모사는 "털끝 한 올이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조선 초상화의 명제를 마음 깊숙이 따르고 있는 화가의 견실한 자세가 담겨 있다.[11] 또한 이 사실성은 자화상을 통해 학문과 삶을 일치시키고자 그 자신에게 다그쳤을 철저한 엄격성과 불운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꼿꼿하게 지켜나간 선비의 옹골찬 지조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치밀한 솜씨가 발휘된 윤두서의 자화상은 서양미학에서도 거론하는 자아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렘브란트와 윤두서의 자화상에서는 당시 사회와의 연관성과 그 속에서 발현되는 자아의식 성장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비록 활동 무대는 달랐지만 근대기

11) 이승건, 『미술특강』 (서울: 미술문화, 2004) p.63.

라는 비슷한 격동기 속에서 꿋꿋이 대처하면서 당당한 주체로서의 뜻을 세우고자했던 근대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을 통해 생생히 남기고 있다.

(2) 고양된 자아-뒤러, 르브룅

15세기,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개인적인 목적에서 자화상을 그린 화가로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가 있다. 그가 자화상을 그리기 전에도 고대나 이전 르네상스시대에 화가들이 자화상[12]을 그렸지만 그가 그린 자화상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개인적인 목적에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도판4)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의 우상 아폴로에 기탁하여 집어넣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척도로 삼았다. 그리스도를 투사한 이 자화상은 예술가의 창조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고양된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지전능한 인물, 교양 있는 신사처럼 보이고 싶은 그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기에 높은 자의식을 표현한 근대적 자화상으로 손꼽힌다.[13]

자신의 기량을 한껏 과시한 화가로 18세기의 성공한 여성화가 엘리자베트 비제 르브룅(Marie-Louise-Elisabeth Vigee-Lebrun, 1755~1842)이 있다.(도판5) 이 그림은 1783년 파리 살롱전에서 전시되었을 때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자신의 명성을 표현한 것이다.[14] 그녀는 이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육체적인 매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뛰어난 화가라는 증거로 팔레트를 들고 있다. 이 그림은 '밀짚모자'로 알려진 루벤스의 유명한 초상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 높이 평가되던 과거의 걸작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15]

---

12) 입회자화상. 단독자화상이 발달하기 전 단계의 르네상스기에 나타난 형식으로 화면 어딘가에 화가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승건, 상게서, p.59.
13) 이승건. 전게서, p.60.
14) 살롱전: 프랑스 정부가 후원하는 공식적인 미술전람회. Salon.

한편 화가들은 높은 직업적 자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팔레트와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활용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벨라스케스(Diego Rodr guez de Silva y Velázquez, 1599~1660), 렘브란트(V.R. Rembrandt, 1606~1669), 루소(Henri Rousseau, 1844~1910), 고갱(Eugene Henri Paul Gauguin, 1848~1903), 샤갈(Marc Chagall, 1887~1985), 마티스(Henri Emile BenoIt Matisse, 1869~1954), 보테로(Fernando Botero Angulo, 1932~), 고희동(1886～1965), 서동진(1900~1970) 등 시공간을 뛰어넘어 공통되는 상징 기제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현상도 흥미롭다.

(3) 죽음 앞 자아-피카소, 이중섭, 김명국

피카소(Pablo Ruiz y Picasso, 1881~1973)와 이중섭(1916~1956)의 자화상은, 우연이겠지만 죽음을 예고하는 듯 섬뜩한 인상을 준다. 마치 죽음과 대결하는 것처럼 둘 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피카소가 91살에 그린 자화상(도판6)은, 그의 자화상 그림에서는 보기 드물게 얼굴을 정면으로 포착한 것이다. 그로테스크한 표정과 거친 표현이 어린아이의 낙서화 같다. 우리는 이 자화상을 통해 죽음과 대면한 피카소를 만날 수 있다. 해골 모양의 머리에다가 크기가 다른 눈동자, 게다가 얼굴색은 녹회색으로 창백하다(죽음의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다). 머리 뒤쪽의 빨간 선들은 피가 빠져나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오른쪽 눈과 눈썹, 그리고 입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턱과 목 주변의 헝클어진 선에서 그의 불안한 심리를 감지할 수 있다. 이는 그가 말년에 그린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심리를 꾸밈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아도 된다. 화가로서 생전에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고, 또 장수한 그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피카소는

15) 앨릭잰더 스터지스, 전게서, p.229.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16)]

이중섭의 자화상도 기운이 심상치 않다.(도판7) 공들였으며 소박한 그림은 어딘가 을씨년스럽다. 늘 가족과 자신을 함께 그린 이중섭에게 이 그림은 자기 얼굴만을 그린 유일한 자화상이다. 탄탄한 소묘력이 발휘된 사실적인 자화상은 이중섭이 죽기 1년 전, 소설가인 친구 최태응(1917~1998)에게 자신이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그린 것이다. 당시 그는 39살이었는데 그림 속의 이중섭은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인다. 기색이 어둡고 눈 주위는 피곤한 빛이 역력하다. 가족을 일본으로 보내고 혼자 남은 그 눈빛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과 공허함이 감돈다. 그가 이 자화상을 유서처럼 남긴 탓이다.

한편 달마도로 유명한 조선 중기의 화가 김명국(1600~?)은 그림을 사랑한 화가답게 자신의 유언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상복을 입고 건(巾)을 뒤집어 쓴 채로 지팡이를 비스듬히 집고 저승길을 유유히 걸어가는 뒷모습은 화가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도판8) 탈속적 삶을 산 김명국은 왕권 중심의 사회 조선에서 자의식을 담은 그림을 이런 글과 함께 남기고 사라진다.

"世上多騷客 誰招已散魂 세상엔 시인이 많고 많지만 누가 이미 흩어진 혼을 불러주리오[17)]"

(4) 풍경 속 자아-이쾌대, 장욱진

자화상은 배경은 단순하게 처리하고 인물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보통인데 때로 야외 풍경과 함께 화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16) 리브로 웹진 부커스, 「자화상이란 이름의 자서전」 http://www.librodvd.co.kr/Webzine/WebzineContent.aspx?aid=4701&wzcode=0406 (검색일자:2009년 4월 11일)

17) 유홍준, 『화인열전1』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16.

인물의 강렬한 표정으로 호소하는 것과 달리 배경에 의해 자화상의 의미가 풍부해진다. 배경과 인물이 상부상조하면서 의미를 생산하는 까닭이다.

일본강점기와 해방정국의 혼란기를 살았던 이쾌대(1913~1965)의 자화상(도판9)에는 인물의 상반신을 전면에 크게 부각시키고 풍경을 들러리 세웠다. 여기서 화가의 등 뒤로 펼쳐진 것은 머리에 물동이와 짐을 이고 가는 여인들이 사는 평화로운 시골풍경이다. 그것은 그가 동경하는 조선의 모습이자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이다. 하지만 정면을 응시하는 큰 눈동자에는 불안한 흔적이 느껴진다. 이런 불안의 기미는 화면에 숨겨진 모순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두루마기의 전통복식에 서양의 중절모, 왼손에는 유화 팔레트를, 오른손에는 동양화 붓을 들고 있다. 이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 정상과 비정상이 한 몸에 콜라주 된 모습이다. 화가의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의 정체는 이에서 말미암는다.[18]

한편 드넓은 자연 속에 자신을 방목해 둠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 장욱진(1918~1990)의 자화상(도판10)도 볼 수 있다. 그의 자화상에는 시골의 황금들판 사잇길을 연미복 차림에 박쥐우산을 들고 걸어가는 화가의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그런데 자화상이 그려진 시기는 놀랍게도 1951년, 6·25전쟁 때였다. 그가 고향으로 피난 가서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전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도리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시골의 전원 목가풍으로 차있다. 이러한 자화상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치열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구현하는 자세는 그림의 구도로 인해 한층 강화된다. 약간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본 듯한 시점에서 풍경을 최대한 크게 잡아두고 자신은 작게 처리하여, 자연에 안긴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

18) 정민영, 「이쾌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파이낸셜 뉴스. 2007년3월15일자.

두 그림은 모두 자연이 배경으로 사라지는 인간중심적인 서양의 자화상과는 다르다. 자연 지배가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국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다.

(5) 여성의 자아-프리다, 천경자

보통 남성이 주체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작품을 구성할 때 여성은 자신의 내적 심리를 표현하는데 더 열중한다고 한다. 특히 페미니즘 작가들은 남성적인 표현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여성의 고유한 신체성과 자아인식을 오히려 강조하며 여성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자신의 자화상이나 삶을 통해 표현하였다.[19)]

한국과 멕시코의 대표적 여성 작가인 천경자(1924~)와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의 그림은 주제와 화풍이 많이 닮아 있다. 그들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지 않던 시절에도 사회적 직분을 가진 신여성으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불행하였다. 두 작가 모두 순탄하지 못했던 결혼생활로 평생 우울과 불안을 겪었고, 유난히 강한 자의식을 가졌음에도 고뇌찬 현실로부터 충족 받지 못하는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자화상을 그리는 것으로 표출하였다.

천경자의 작품에는 1970년대 이후 자신을 모델로 한 여인이 많이 등장한다. 자신의 이미지가 강하게 담긴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도판11)는 결혼한 그가 스물두 살 때 첫 딸을 낳았던 당시 겪어야 했던 험준한 삶의 고비를 회상하고 있다. 머리에 꿈틀거리는 한을 이고 있는 듯 몇 마리 뱀을 두르고 시든 장미꽃 하나를 가슴에 얹은 여인의 섬뜩한 모습에서 한 여인의 지

19) 정영인, 「방어기제 관점으로 본 페미니즘 작가 자화상의 자아치유 요인 연구」, 한국 디자인포럼, 제22호, 2009, pp.67~78.

울 수 없는 한의 뿌리를 읽을 수 있다.[20]

또한 18세 때 사고를 당한 후 병석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프리다가 그릴 수 있었던 최초의 소재는 자신이었다. 프리다의 그림에는 유난히 자화상이 많다. 어떤 그림에서든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강렬하게 응시한다. 그녀가 바라보는 것은 거울을 통해 들여다본 상처투성이인 자기 자신이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거울을 붙이고 거기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기의 내면세계를 관찰했다고 한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봄으로써 사고의 고통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내 마음 속의 디에고〉(도판12)에서 프리다는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의상 자체가 의미하는 모성애에 대한 공감은 물론 남편 디에고를 향한 애착 때문이다. (전통의상은 디에고가 매우 좋아하는 의상이었다.) 당시 프리다는 남편과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한 상태였는데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은 급기야 자신의 이마에까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다섯 가지 기제로 나누어 조명해 본 작가들 외에도 베크만(Max Beckmann, 1884~1950), 록웰(Norman Rockwell, 1894~1978),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워홀(Andy Warhol, 1928~1987), 백남준(1932~2006), 헤링(Keith Harin, 1958~1990) 등의 현대 화가들은 명백한 자기 개성을 가진 고흐나 샤갈만큼이나 그들만의 독창성,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자아를 표현하였다. 이들은 자화상의 기능을 더욱 확장시켜 대중에게 전하는 교훈을 담거나, 공공시설을 꾸며주는 등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이상, 인류 미술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화상은 체험적인 인식의 산물로서 자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살아가면서 겪은 사건, 행복과 고난, 장애

20) 유수정, 전게서, p.18.

와 외로움 등 자신에게 비롯된 의지를 모티브(motive)로 작품을 전개한다. 작품에 펼쳐진 작가들의 삶과 꿈, 환상, 동경의 세계는 각자의 작품 세계를 밀도 있게 구성하고 시대에 앞선 강한 개성을 이룬다. 작가들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만을 그리기 위해 자신의 세밀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감추지 않고, 오히려 남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의 상처나 아픔조차도 또렷하게 응시하고 관찰하여 그림으로 표현해내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화상 작품들은 감정의 의미보다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마음에 두면 곪아터질 뿐인 상처를 역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자화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자화상의 경향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자화상 제작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혼란스러운 심리적 요인들을 스스로 찾고 전환시키게 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학교 수업에서 다루어 청소년들의 인성적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의 심리적 · 정서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청소년기의 특성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타고난 유전적 기질에 의해 행동과 사고를 조직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상호작용은 연령에 따라 그 성향이 달라진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 구조가 경험적 활동에 의해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지적, 정서적, 심리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청소년에 맞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마친다.”는 말이 있다.[21] 이때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또한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난다.

발달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대체로 중학교 입학을 전후하는 시기에서 시작된다.[22] 즉 11~12세경부터 신체적으로 급격한 외적,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기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나 대학으로 진출하기 전인 11세부터 18~20세 정도의 연령층에 있는 젊은이들이다.[23] 청소년이 아동이나 성인과 구별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신체적 생리적 특성으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신체적인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고 성적으로도 성숙하여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유아기 이후 가장 급격한 신체 변화는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대인관계에 중요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발달의 속도와 변화의 폭이 개인별·성별로 차이가 나는 것 또한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24] 특히 신체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미성숙 사이에서 오는 불균형 상태는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좌절과 회의, 불신을 경험하게 한다.

둘째로는 청소년기는 정서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써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낙관적 감정과 비관적 감정이 교차하는 등 감정의

---

21) Conger & Petersen, 1984

22) 발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갖고 태어난 생득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이 관계를 맺고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를 발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3) 사미자, 「인생주기 이론에 비추어 본 청소년기」 기독교 사상 5월호, 1988, p. 57.

24) 임은미, 「인간발달과 성」 성교육성상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0, pp.25-25.

변화가 크다. 학생들이 어느 날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다음 날에는 성인처럼 행동한다면, 바로 정서적인 굴곡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도전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창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수줍음을 느끼는 한편 충동적이며 호기심과 모방성이 강한 면모도 있다.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생활 감정이 발달하므로 정서의 문제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지나치게 억압하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셋째는 사회적 특성으로 이 시기에는 또래집단을 중요시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이 때 맺은 친구와의 우정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동성친구를 우선시 하다가 점차 이성과 친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점차 이유(離乳)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세계를 찾고 그에 맞는 자격이나 능력 요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즉흥적이었던 아동기의 사고 체계를 버리고 보다 수준 높게 숙고하기 시작한다. 과거에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성인들에 대해 비판을 시도하며 새로운 신념을 탐색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특징들은 발달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립한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의 인지발달이론과 콜버그(Lawrence Kohlberg, 1927~1987)의 도덕발달이론, 에릭슨(Erik Homburger Ericsson, 1803~1889)의 심리사회발달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피아제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발달은 자연적인 성숙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그 과정은 질적으로 다른 4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므로 특정한 과

제는 특정단계에서만 가능하다. 발달속도는 아동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문화적 보편성을 나타낸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 중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형식적 조작기는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논리적 사고와 추상적 추론이 가능해지는 지능발달의 최종단계로 정의된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체계적 사고로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합리적 사고에 이르게 된다.[25)]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 사고에 기초하여 청소년기 사고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지각과 경험보다는 논리적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설설정 및 상상적 추론과 같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지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다양한 경험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모색해봄으로써 문제 해결에 이르는 조합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런 추상적 사고능력의 발달은 이상적 세계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불완전한 현실을 비판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갖게 하기도 한다. 둘째, 청소년의 지적 발달은 합리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들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방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교육적 방법과 전달·명령 속에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어야만 수긍한다.[26)]

2)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피아제가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발달단계를 연구했다면 콜버그는 성인까지 확대하여 도덕성 발달단계를 체계화시켰다. 그는 가상의 도덕적 갈등상황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유형에 따라 발달 수준을 여섯 단계로 나누었다. 도덕성 발달은 어떤 정해진 특성(국가, 문화, 연령 등)에 관계

25) 임승권, 『교육심리학』 (서울: 양서원, 1990) p.21.
26)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1998) pp.138~141.

없이 일정한 발달을 가지고 있다. 상위단계로 발달할수록 그 사고체계는 이전의 단계보다 더 광범위한 관점을 가지고 더 복잡하고 추상적 사고를 한다.

아동기를 막 벗어난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택하기 시작하며,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질서나 합의를 중시한다. 또한 사회 속에서 수행되어야 할 의무를 중시하는 인습적 도덕 판단 수준에 이른다. 개인의 자유나 생명 같은 절대적 가치도 점차 중시하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판단과, 사회 질서의 필요성보다도 개인의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단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특징은 도덕적 판단을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보는데 있어 이원론적인 입장으로 서로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두 입장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일방적으로 강조해버리는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27)]

3)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간발달 특성을 밝힌 에릭슨은 인생의 주기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8단계는 각 단계마다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과업과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위기의 양면으로 상정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가운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인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의 시기'는 아동기에 형성되었던 내면의 세계가 새로운 가치와 이념으로 변화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이러한 격변 때문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일이 중심문제가 된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에 관해서 통합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27) L. Kohlberg, Stages of moral development as basic for moral education, E,M. Beck and E.V. Sullivan ed. (N.Y.:New Man Press, 1971) pp.86~90.

를 말한다.[28] 이것은 개인의 이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합하는 자아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 또한 타인의 눈에 비친 나가 누구인가에 심각한 관심을 보인다. 자신의 내부와 외부를 조정하고 탐색하며 자아정체 위기를 점진적으로 극복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을 올바르게 성찰하고 자아를 정립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특히 인간의 인지적, 도덕적, 심리사회적 구조와 지능은 경험적 활동에 의해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다는 점에서, 자화상 창작활동도 연령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알맞은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청소년기는 아동으로서의 모습을 벗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기의 발달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조화로운 자아 형성의 작업으로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

28) EnCyber & EnCyber.com, 「자아정체감」 (두산백과사전) http://timeline.encyber.com/search_w/ctdetail.php?masterno=725829&contentno=725829 (검색일자: 2010년 3월 9일)

Ⅲ. 청소년의 자아표현과 관련된 현행 교과서 분석

1. 미술과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29)]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7차 교육과정, 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2월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 발표되어 2011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재량활동의 도입 등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던 교육과정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7차 교육과정보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아직도 경직된 모습을 띠고 있어 교육수요자의 관심과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국가나 교육청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던 경직성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현장 운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군과 학년군,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하고, 학교에 교과(군)별 수업시수 증감을 허용하여 교과 이수시기와 수업

29) 김승익, 「2009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 2010.2., pp.1~6.

시수(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30]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고,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강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 등도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

구 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공통사항 (용어 및 교과명 변경)	◦용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초1~고1까지 10년간) -선택중심 교육과정 (고2~3까지 2년간) ◦교과명 -외국어(영어) ◦특별활동, 재량활동	◦용어 -공통 교육과정(초1~중3까지의 9년간 의무교육기간과 일치시킴) -선택 교육과정(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명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초·중·고 공통사항 (신설사항)		◦학년군, 교과군 개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교과별 기준시수 20%증감 운영 등 ◦교과 교실제 운영 활성화 유도

30) 교과군: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군 개념으로 유목화하는 개념. "교과로 묶는다".
학년군: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교는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하였으며,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 집중 이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집중이수제: 2~3개 학년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을 학년별로 집중해 이수하거나, 1년 동안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기동안 집중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집중학습이 가능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학습부진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사항 신설
중학교	◦선택과목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등	◦선택과목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고등학교	◦고1 교과 필수 ◦총 이수단위 : 210단위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 전문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전공외국어로 하고, 전공포함 3개의 외국어 교육	◦고교 모든 교과 선택 ◦총 이수단위 : 204단위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 ◦과학, 영어, 예술 등 영역별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 전문교과 이수단위의 60%를 전공외국어로 하고, 전공외국어 포함 2개의 외국어 교육
범교과 학습 요소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등 35개 요소	◦녹색교육, 한자교육, 한국문화사교육 추가

중학교 교육과정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기존의 학년별·교과별 수업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학년군별,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하고,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교과군별 2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교과 집중 이수를 통해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 수를 중학교에서는 8개 교과목 이내로 적정

화하여 학습효과가 증대되도록 조정하였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중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 과목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도 "학교는 학생의 직업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생의 진로를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개인이 이수해야 할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밟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구조건은 바로 자아정체감 형성이다. 자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화상 창작 수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올바로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2. 중학교 개정 미술교과서 분석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새로운 교과서는 기존에 학년별로 각각 교재를 두었던 것과 달리 3개 학년의 내용을 한 교재로 묶어 구성하였다. 새롭게 출간된 총 9종의 교과서 중 조사할 수 있었던 8종의 교과서 안에서는 자화상을 주제로 한 교수-학습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중 자화상을 소재로 수업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교과서 5종을 추려 분석함을 밝힌다.

1) 교학사

〈표 2〉 교학사 교과서 분석

<table>
<tr><td colspan="3">교과서 내용 체계</td></tr>
<tr><td>미적 체험</td><td colspan="2">1.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2.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td></tr>
<tr><td>표 현</td><td>1.표현의 즐거움
3.사물의 아름다움
5.인물의 아름다움◀
7.판을 이용한 그림
9.심상의 세계
11.평면에서 입체로, 그리고 행위로
13.다양한 현대 조소
15.그림이나 기호로 전달하는 디자인
17.쾌적한 환경을 위한 디자인
19.서예의 조형미</td><td>2.빛과 명암 그리고 그림자
4.화면에 나타난 공간감
6.전통 회화
8.추상 표현
10.생활 속에서
12.공간 속의 입체
14.색체의 세계
16.사진과 영상 이미지
18.현대생활용품의 기능과 아름다움</td></tr>
<tr><td>감 상</td><td colspan="2">1.보고 느끼는 즐거움 2.미술의 흐름
3.미술 작품 감상 4.미술과 문화</td></tr>
<tr><td colspan="3">교학사 중학교 미술 p.64~65
영역분류 : 표현
중 단 원 : 인물의 아름다움
소 단 원 : 자신의 내면을 찾아서
학습목표 : 자기 내면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td></tr>
<tr><td>내 용</td><td colspan="2">·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세와 표정을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보자.
·작가들의 자화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 보고, 표현기법에 대해 알아보자.</td></tr>
<tr><td>예시도판</td><td colspan="2">·팔레트를 들고 있는 자화상(유채/88.9×58.4cm/1917년 작) 샤갈(Marc Chagall/1887~1985/러시아→프랑스)
·안창홍이 안창홍을 그린다(아크릴/109×79cm/1998년 작) 안창홍(1953~/한국)
·자화상(기름종이, 먹/28.6×19.8cm/조선)강세황(1713~1791/한국)레 미제라블(유채/45×55cm/1888년 작) 고갱(Eugene Henri Paul Gauguin/1848~1903/프랑스)
·자소상(테라코타/34×21×19cm/1967년 작) 권진규(1922~1973/한국)
·학생작품 2점</td></tr>
</table>

교학사는 인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중의 한 종류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자화상을 소개한다. 인체비례의 이해를 돕는 자료와 표현방법이 다양한 예시 작품을 실어서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심화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다. 예시도판은 표정이 주로 부각된 것이 많다. 인물화라는 큰 틀 안에 속해 있어 다양한 인물의 표현을 참고, 연계할 수 있다. (연계자료-교학사 중학교 미술 p.60)

2) 교학연구사

〈표 3〉 교학연구사 교과서 분석

교과서 내용 체계			
	미적 체험	**표 현**	**감 상**
미술과 인간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나의발견◀ ·나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 ·꿈과 상상의 세계 ·학교생활◀ ·우리 가족 이야기◀ ·우리 동네 ·인물의 다양한 표현 ·색의 느낌을 살려 ·한 가지 색으로 ·운동감을 강조하여	·어떻게 볼까? ·인물로 본 서양 미술의 흐름
자연과의 만남	·자연을 응용한 조형미	·하늘의 표정 ·숲과 나무 …	·자연을 화폭속으로 ·자연을 담은 건축과 조경
재료와 표현	·물질을 만나다	·입체로 표현하기 ·판 위에서 …	·재료로 살펴본 미술의 역사
생활 속 디자인	·디자인의 이해	·색의 기초와 원리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 …	·디자인의 흐름
함께하는 미술	·시각문화 환경	·미술에 담은 세상 ·미술로 의미 나누기 …	·미술이 있는 공간 ·아시아의 미술

현재로 이어진 전통	·전통 문화와 미술	·먹의 향기 ·채색의 멋 …	·전통 회화의 종류 …

교육연구사 중학교 미술 p.8~26
대 단 원 : 미술과 인간
영역분류 : 표현
소 단 원 : ❶나의 발견 / ❷나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
학습목표 : ❶개성 있는 나의 모습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한다.
❷나의 꿈과 희망, 미래를 상상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

❶나의 발견	
학습목표	개성 있는 나의 모습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한다.
내 용	·다양한 시각으로 인물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사진으로 찍어서 표현하기 –옷차림, 머리모양, 습관, 별명 ·작품에 표현된 인물의 용모와 성격을 설명해 보자. –자신을 표현한 화가 작품의 표현 특징 ·일상생활 속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해보자.
예시도판	·자화상(마소니트에 유채/59.5×40cm/1940년작) 프리다 칼로(Frida Kahlo/1907~1954/멕시코) ·학생작품 5점
평 가	1.자화상을 보고, 인물의 성격과 외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 2.자신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재료와 기법을 선택하였는가? 3.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

❷나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	
학습목표	나의 꿈과 희망, 미래를 상상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
내 용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좋을까? –미래를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시도판	·나만의 세상(청동/43×45×40cm/2004년 작)김경민(1971~/한국) ·학생작품 4점
평 가	1.현재의 생활 모습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특징 있게 잘 나타났는가? 2.주제를 드러내는데 적합한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였는가?

교학연구사는 '미술과 인간'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미적체험, 표현, 감상영역을 나누었다. 이 단원 전체를 자화상 수업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과 주변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활동이 기본이 된다. 표현활동은 입체와 평면, 주제나 상황, 강조점 등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으로 나와 주변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기성작가들 작품이 1/3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학생작품으로 또래들의 작품 감상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

3) 지학사

〈표 4〉 지학사 교과서 분석

<table>
<tr><td colspan="3">교과서 내용 체계</td></tr>
<tr><td>아름다움의 발견</td><td colspan="2">1.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2.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td></tr>
<tr><td>표현의 기쁨</td><td>1.선에서 이미지로
3.주변의 것을 살펴서◀
나의 미술 세계
무엇이 보이는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한 가지 색으로 마음껏 그리기
정물과의 속삭임
깊이와 넓이에 계절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td><td>2.우리는 날마다 색과 만나고 있다
4.전통 회화의 멋을 이어서
5.한글의 아름다움
6.판화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7.입체로 말하기
8.자유로운 사고, 다양한 표현
9.디자인의 세계
10.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11.우리가 숨 쉬는 공간
12.미술과 축제</td></tr>
<tr><td>보고 느끼는 즐거움</td><td colspan="2">1.미술과 우리 문화
2.미술 작품과의 만남</td></tr>
<tr><td colspan="3">지학사 중학교 미술 p.66~67
영역분류 : 표현의 기쁨
중 단 원 : 주변의 것을 살펴서
소 단 원 :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td></tr>
</table>

학습목표 : 자신의 모습과 성격을 살려 표현한다.	
내 용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여 남들로부터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자화상을 그려보자.
예시도판	·한 사람으로서의 눈뜬 자화상(유채/120×100cm/2007년 작) 변웅필(1970~/한국) ·자화상(수묵담채/38.5×20.5cm/18세기)윤두서(1668~1715/조선시대) ·가시 목걸이와 벌새가 있는 자화상(유채/62.3×47.6cm/1940년 작)칼로(Frida Kahlo/1907~1954/멕시코) ·학생작품 2점
평 가	1.나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는가? 2.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였는가?

지학사는 한정된 도판 안에서 동서양과 전통과 현대의 미술을 효과적으로 제시함과 더불어 자화상 그리기 활동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표현 뿐 아니라 감상 활동까지 학습하기 좋다.

4) 미진사

〈표 5〉 미진사 교과서 분석

교과서 내용 체계			
미적체험	1.미술과 환경 2.미술과 인간 1)인간에 대한 탐색 2)몸으로 말하기 3)나와 우리 표정을 찾아서 나를 표현하기◀ 내면의 세계 표현하기◀		
표 현	3.미술과 시각	4.미술과 형태	5.미술과 색
	6.미술과 생활	7.미술과 전통	8.미술과 매체
감 상	9.미술과 감상		

미진사 중학교 미술 p.30~31 영역분류 : 미술과 인간(미적체험) 중 단 원 : 인간에 대한 탐색 소 단 원 : 나를 표현하기 학습목표 : 여러 감각으로 나를 탐색해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내 용	·나의 겉모습과 속마음을 탐색하고 나를 표현해보자 ·서로의 작품과 화가의 자화상에서 표현 의도를 찾아 이야기해보자.
예시도판	·정자관을 쓴 자화상(캔버스에 유채/72×52.5cm/1915년) 고희동(1886~1965/한국)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0.5×54.5cm/1890년) 반 고흐(Vincent Van Gogh/1853~1890/네덜란드) ·팔레트 속의 자화상(나무 팔레트 상자에 유채/17.7×23.5×6.2cm/1930년) 서동진(1900~1970/한국) ·가시덩굴, 벌새, 일자눈썹의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2.2×48.3cm/1940년) 칼로(F, K/1907~1954/멕시코) ·학생작품 3점

미진사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자화상이라는 소재를 표현영역에서 다루는 것과 달리 미적체험 영역에서 다루어 기반을 닦는 단계로 활용하기에 좋다. 이 교재는 조형원리나 미술지식 등을 토대로 단원 활동을 전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을 소재로 하는 활동을 확장시켜 다른 단원과 연계할 수 있는 응용의 여지가 많아 실용적인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연계자료-'내면의 세계 표현하기 p.32'의 '마음 속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3.나와 우리'에서 '우리의 일상 엿보기' p.40~46)

전체적으로 이론의 체계에 따라 교재를 구성했다. 표현영역의 경우, 이론적 정보를 지면에 먼저 싣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실습활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5) 두산동아

〈표 6〉 두산동아 교과서 분석

<table>
<tr><td colspan="3">교과서 내용 체계</td></tr>
<tr><td>미적체험</td><td colspan="2">1.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구조
2.우리와 함께하는 시각 문화
3.아름다움의 발견</td></tr>
<tr><td>표 현</td><td>4.보고 나타내기
소묘란 무엇일까
보고 그리기
시선이 머무는 풍경
나, 우리 그리기◀
5.다양한 조형의 세계</td><td>6.전통회화를 찾아서
7.함께 배우는 서예
8.재미있는 판화, 다양한 판화의 세계
9.입체 표현의 아름다움
10.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11.우리가 꿈꾸는 디자인</td></tr>
<tr><td>감 상</td><td colspan="2">12.보고 느끼는 즐거움</td></tr>
<tr><td colspan="3">두산동아 중학교 미술 p.54~57
영역분류 : 표현
중 단 원 : 보고 나타내기
소 단 원 : 나, 우리 그리기
학습목표 : 이해-인물화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
표현-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개성 있는 인물화를 그려본다.
감상-여러 가지 인물화를 감상하고 시대별, 작가별, 재료별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본다.</td></tr>
<tr><td>내 용</td><td colspan="2">사진이나 거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는 자화상은 표정이나 특징, 분위기 등을 개성을 살려 표현해야 하며, 특정인을 그리는 초상화는 인물의 내적인 분위기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td></tr>
<tr><td>예시도판</td><td colspan="2">자화상(캔버스에 유채/41×32.5cm/1886~1887년 작)반 고흐(Vincent van Gogh/1853~1890/네덜란드)
자화상(캔버스에 유채/46×38cm/1893~1894년 작) 고갱(Eugene Henri Paul Gauguin/1848~1903/프랑스)
해녀와 자화상(캔버스에 유채/112×162cm/1992년 작) 장리석(1916~/한국)</td></tr>
</table>

두산동아는 인물화 단원에서 인물 표현의 심화단계로 자화상을 가볍게 언급하고 있어 분량이 많지는 않으나 인물화와 자화상을 적절히 섞어 대비를 잘 시켜 놓았다.

미술 교과에서 인물화를 소재로 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미술과 인간의 관계를 탐색하도록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자화상 창작활동은 자기 자신을 조명하고, 성찰하고, 확증하도록 해준다. 이 활동은 청소년기에 들어선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하여 정립해야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앞부분에 편성한 것을 볼 수 있다.

Ⅳ. 자아 형성을 위한 자화상 창작 수업 지도 방안

1. 청소년의 자화상 창작활동 수업의 교육적 가치

청소년기의 개별적인 발달은 유아기만큼이나 뚜렷하지만 청소년기의 욕구는 아동의 욕구와 달리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이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성장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31)]

청소년들은 한동안 자아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으므로 학습주제는 청소년 자신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좋다. 풍경이나 정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미술기법에 관한 지식과 미술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능들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32)] 자화상 창작활동은 개인적인 체험이 바탕이 되어 청소년들의 혼란을 전환시키고 승화시켜줌으로써 자아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도록 도와준다.

자아 정체성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내면화하고 형성시켜 가는 것이다. 자화상을 그릴 때 자유롭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껴지는 욕구를 그대로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내적, 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등을 객관화 시켜 보게 된다. 또 자신의 특성이 파악되면 주변세계를 돌아보게 된다. 가정과 학교, 또래친구들과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31) 로웬펠드,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1993) p.249.
32) 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의 미술교육 과제와 조형예술학적 접근』 (서울: 예경, 2000) p.253.

인간의 오감으로 지각하고 직관하기 때문에 자기표현 감각이 개발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실제 중등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술 수업시간에 전문가적 접근을 하여 수준과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거나, 역동적이어야 할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등의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중등학교의 미술에 대한 접근에서 벗어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방향은 의미 있는 미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의미 있는 창의적 미술 프로그램은 문화 속에 위치한 청소년의 본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맥락적 수업의 구체적 사례로 2009년 4월에 잠실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짝꿍 얼굴 그리기' 수업을 들 수 있다.[33] 이 수업은 맥락에 맞는 의미 있는 미술 경험이 학생들의 생활에 어떻게 대입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이다.

당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첫발을 디딘 학생들은 낯설고 서먹서먹한 감정이 채 가시지 않아 전체 학급 친구들과 융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얼굴과 성격을 특징지어 그리도록 과제를 내주었다. 학생들은 친밀하면 친밀한대로, 어색하면 어색한대로 옆 친구와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였으며, 자신의 얼굴이 소재가 되어 흥미를 느끼므로 점차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완성된 작품은 모두 걷어 누구인지 다함께 맞춰보고, 그림을 그린 학생이 친구를 소개하는 순서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적극성을 띄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개인의 성향 차이에 상관없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수업은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한 소재를 적절하게 택함으로써 학급의 분위

33) 본 내용은 2009년 4월에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지원이 교생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어 신학기 때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 일방적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택함으로써 실제적인 미술경험을 제공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게시판에 작품을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은 감상하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등학교의 미술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사고와 정서, 환경에 대한 반응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4]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접하는 수많은 변화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적인 관심과 자기표현을 위한 배출구가 필요하다.

자화상 창작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경험의 깊이가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자화상은 자신이 소재가 되므로 청소년 스스로의 모습을 깊숙이 조명하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경험을 상징화하거나 승화 또는 전환시키는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는 다양한 학습지도를 거쳐 형성된 자아와 환경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미술교육의 목적은 미술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인간형성에 두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이 보통의 미적 감각으로도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미술과 학습의 매력이기도 하다. 즉 중등학교의 미술과 교수-학습 활동은 전문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계속되는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술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감성교육, 체험교육을 통한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타인의 이해와 협동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34) 로웬펠드, 전게서, pp.250~252.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자화상 교수-학습법

1) 학습자 특성 진단

(1) 일반적 특성

이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평균적인 수준의 중학교 학생들로 13~15세의 연령 범위를 가지고 있다. 한 학급의 평균적인 구성원은 35명이고 이들은 각기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속해 있지만 도시에서 주거하는 중간 정도의 계층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각종 영상매체를 접하며 자라온 세대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한편, 기초적인 표현활동을 넘어서 창의적인 미술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표현방법과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청소년기의 미술표현능력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공간표현을 시도하는 미술표현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급속히 변화하는 다른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발달 속도에 비해 표현에 있어서의 발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뜻대로 그려지지 않을 경우 실망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35)]

한편 미술 수업을 듣는 중학생들은 출발점 능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 주제의 특징과 목적 등을 생각하여 알맞은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기초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생활에서 미술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35) 로웬펠드, 전게서, p.41.

-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언어나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비판력이 증대되어 작품을 분석·평가 하고 가치를 음미할 수 있다.
-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에서 표현의 특징을 찾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수업활동이 끝난 후 자신의 활동에 대해 비평하고 다음 활동에 개선시켜 반영할 수 있다.

(2) 학습양식

중학교의 학생들은 만들고 그리는 일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장식적 표현에 제법 관심이 있다. 기본 개념과 기법 등을 숙지하는 도입단계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므로 발문 등의 장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들은 발상 및 계획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습이 끝난 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명하고 각자 능동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는 여럿이서 함께 수행하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실습을 할 때에는 산만해지기 쉬우므로 수업진행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학생들은 시각적·청각적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수업내용 전달에 효과적이다. 또 용구와 재료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시기이므로 교사는 시범을 보이거나 다양한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흥미를 증폭시켜줄 수 있다. 어떤 아동들은 어른흉내처럼 여러 기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유리 단계에 있다. 사춘기에 들어선 학생은 자신의 그림에 대해 비관적인 안목을 가지거나 감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억압을 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학습에 임하도록 격려해준다. 이 시기의 학습자는 비판력이 증대되어 작품을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제를 완성한 후

다함께 감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면 학생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감상능력, 비판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에 따라 감상비평 활동이 끝나면 다음에 수행할 활동에 개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시별 지도계획(총 3차시, 1교시 45분)

개정되어 나온 총 9종의 교과서 중 앞서 분석하였던 5종의 교과서는 물론, 다른 3종의 교과서에서도 모두 자화상 혹은 자아표현의 소재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자화상 표현이 언급된 것은 청소년기에 자아를 확립해가는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개정 교과서의 내용을 확장시켜 수업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교과서는 각 영역별로 기본이 되는 내용과 예시적인 활동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사가 맥락적 관점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자칫 단편적인 감상 수업 혹은 기초적인 표현의 모방 실습이 될 우려가 있다. 개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심화·응용하여 학습자 입장에서 실생활에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교수-학습을 구안하였다.

〈표 7〉 차시별 지도계획

단 원	**미술과 인간** 인간은 몸을 통해 세상을 보고 느끼며,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탐색은 자신을 알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몸과 마음이 만들어가는 나를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인간의 모습이 미술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자.
제 재	**나의 이야기를 담아서** 1. 나의 내면의 모습 2. 나의 상징 3. 나의 일촌

학습목표	1.이해면-자화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2.표현면-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자신의 모습과 성격을 살려 개성 있게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과 연결 지어 그림으로써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다. 3.감상면-여러 가지 작품을 감상하고 시대별, 작가별, 재료별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본다.

단계	교수-학습 내용	유의점	준비물
1/3	**동기부여와 작가들의 자화상 작품 감상** ·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 · 흥미유발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화상 응용의 예: 아바타, 캐릭터, 미술치료 · 작가들의 다양한 자화상 작품 감상 -작가, 배경, 기법 등 구체적 설명 -조형요소와 원리 -참고 기법 보충 설명 -표정이나 동작 등을 관찰 -연상되는 형용사 · 자신과 친구의 특징 소개 -연상되는 형용사 · 작품구상 -나의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어떤 기호적 장치를 쓸까	· 강의법+문답법 · 자화상의 의미 탐구 · 자화상의 다양한 표현방법 소개 · 친밀한 분위기 조성 · 작품구상 주제, 표현방법, 재료 구체적인 구도 등	· 교사 참고자료, 홈페이지, ppt자료, 컴퓨터, 샘플작품 · 학생 필기도구,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2/3	**자화상 창작활동** · 다양한 방법으로 자화상 만들기 · 공통수행 과제(자화상 제작 소재)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3가지 -중요한 주변 관계 2가지 -최근 자신의 심리상태,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건 등 · 선택활동 활동①-나의 내면의 모습 활동②-나의 상징 활동③-나의 일촌	· 자유로운 사고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법) · 자신에 대한 진지한 사고를 하도록 독려 · 표현방법과 재료의 적절한 선택 · 협력적 활동 유도 · 자율활동과 제한활동의 적절한 안배	· 교사 참고자료, 컴퓨터 · 학생 필기도구, 전지, 색상지, 잡지, 가위, 풀, 미술용구, 기록용 디지털카메라 등

3/3	**감상 및 토론, 평가** · 자화상 작품 감상·평가하기 –제작보고서 작성 · 동료들의 분석과 본인의 발표내용 비교 · 자신을 이미지화하여 전달하는 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의견 나눔	· 이미지는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점을 염두 · 교사도 토론에 참여	필기도구, 기록용 디지털카메라

3) 교수-학습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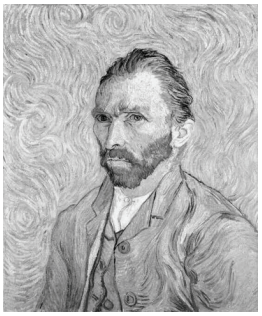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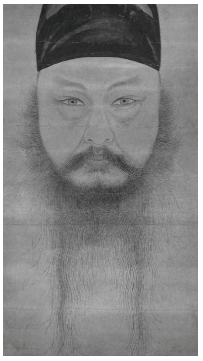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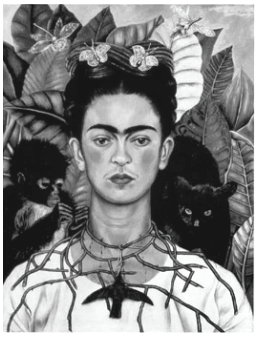
도입단계에서 다양한 예시작품을 보여주는 것은 미술의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기본 개념의 이해를 쉽게 하고 동기를 흥미롭게 유발시키는 한편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PPT자료를 이용하여 작가들의 다양한 자화상 작품을 보여주고 작가, 배경, 기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참고작품을 보면서 교사는 학생들과 자유로이 문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기법은 보충 설명해준다. 이 때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표현 재료나 방법, 가치관 등이 다채로우므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그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도록 한다.

〈표 8〉 교수-학습의 도입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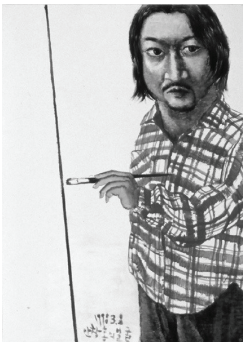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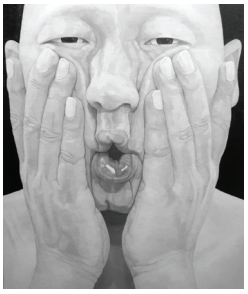
◎교수설명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일종의 고백적 표현이며, 단순히 거울에 바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자화상은 초상화라는 큰 범주에 속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직접 그린다는 점에서 초상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자신을 조

형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단순한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화가들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화가들은 자화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림 속 화가의 시선과 함께 그려진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36]

도 판	설 명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0.5×54.5cm/1890년) 반 고흐(VincentVan Gogh/1853~1890/네덜란드) ·고흐는 자화상에서 소용돌이치는 붓자국을 통해 자신의 심리 변화를 보여 준다.
	·자화상(수묵담채/38.5×20.5cm/18세기)윤두서(1668~1715/조선시대) ·굳게 다문 입과 강렬한 시선에서 선비의 굳건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섬세한 수염의 선묘, 대범하게 농묵으로 처리한 두건, 그리고 눈 주변에 사용된 색 등에서 작가의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가시덩굴, 벌새, 일자눈썹의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2.2×48.3cm/1940년)프리다 칼로(Frida Kahlo/1907~1954/멕시코) ·고뇌의 형틀을 상징하는 듯한 가시목걸이를 한 자신의 모습을, 이질적인 대상들과 한 화면에 배치하였다. 목에 감겨있는 자화상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달리 여인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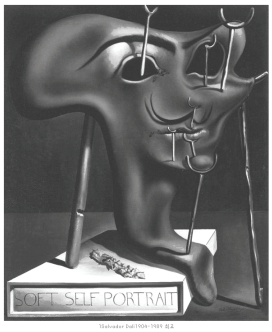
36) 조중현 외『중학교 미술』(서울: 미진사, 2010) p.31.

	・손가락이 일곱개인 자화상(유채/126×107㎝/1914년 작) 샤갈(Marc Chagall/1887~1985/러시아→프랑스) 신사 차림을 한 화가는 7개의 손가락으로 이젤 위에 놓인 그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화가로서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벽에는 고향을 그려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현재와 과거를 한 화면 안에 결합시키고 있다.
	・안창홍이 안창홍을 그린다(아크릴/109×79cm/1998년 작) 안창홍(1953~/한국) 푸른 색조의 얼굴과 붉은 옷을 대비시키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시선을 표현함으로써 강렬한 느낌을 준다.
	・한 사람으로서의 눈뜬 자화상(유채/120×100cm/2007년 작) 변웅필(1970~/한국) 독특한 얼굴 표정의 변화로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었다.
	・자화상(캔버스에 아크릴과 오일 파스텔/117×91cm/2000년) 황주리(1957~/한국)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일상의 모습들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수설명

이처럼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활동은 큰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우리는 눈, 코, 입의 모양과 비례에 따른 독특한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의 생활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여 개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더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상징이 되는 기법으로 자화상을 그리는 예를 볼 수 있다.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록웰(Norman Rockwell, 1894~1978)

보테로(Fernando Botero Angulo, 1932~)

워홀(Andy Warhol, 1928~1987)

백남준(1932~2006)

작가들의 자화상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표정이나 동작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관찰하여 연상되는 형용사를 찾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와 어떻게 부합

하는지 함께 의견을 나눈다. 학생들은 작가의 작품을 관찰한 것처럼 자신과 친구를 특징을 살려 소개한다. 또한 자신의 작품 제작을 위해 나의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 어떤 기호적 장치를 쓸까, 어떻게 다른 이가 읽을 수 있도록 부각시킬까를 생각하며 구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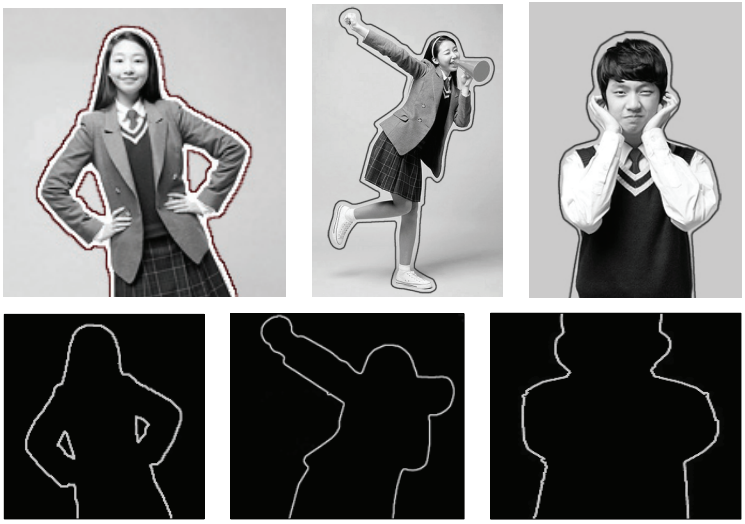
4) 교수-학습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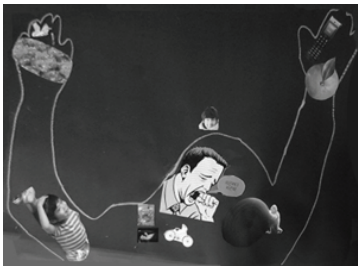
자화상의 개념과 다양한 표현방법을 인지한 학생들은 자화상 제작에 앞서 자기 존재에 대한 내적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구체적 수행을 돕기 위해 본 수업에서 제시하는 공통활동은,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나열해보기,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을 찾아보고 관계도 그리기, 최근 자신의 심리상태 혹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 등을 묘사해보기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화상 표현 활동을 하는데, 수업 목표에 따라 활동내용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는 때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결 지어 수업할 수도 있다.

(1) 선택활동1-내면의 표현

〈표 9〉 활동① 나의 내면의 모습

수업목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시각화시킨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 중 '이미지'의 미디어를 활용해보자. ・이미지는 문자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현실과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임을 이해한다. ・기술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이, 펜 등 기본적인 도구로 나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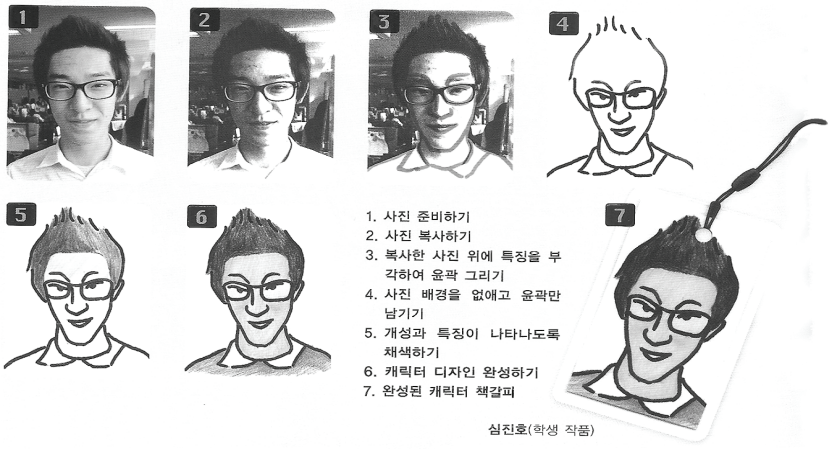
학습자료	PPT자료, 노트 및 필기도구, 검은색 전지, 헌 잡지, 가위, 풀, 표현도구, 디지털카메라
수업내용	◎ 제작 순서 1. 검은색 전지 위에서 자신을 잘 표현해주는 동작을 직접 취해, 윤곽선을 따라 그린다. 동작의 윤곽을 그릴 때에는 동료의 도움을 받는다. [예시안]  2. 그 윤곽선의 안과 밖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채운다. -헌 잡지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법 사용. [예시안]

	 ◎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작업과정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시범을 보여주거나 조언을 한다. ◎ 제작활동 시 제한조건(검은색 전지와 몸의 윤곽선)과 허용의 범위(표현 기법)를 잘 조화시켜 지도한다.

활동①에서 나의 내면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는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막연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통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표현 소재를 스스로 찾도록 한다. 중학교 단계의 자화상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감각능력이 생득적인 것이기 보다 훈련에 의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구체적인 주제를 자신의 내·외부에서 발견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헌 잡지를 뒤지며 표현 자료를 찾는 방법은 미술적 표현능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기 용이하므로 학생들이 '이미지'라는 매체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다. 표현이 자유로운 만큼 학생들은 내면적 요소들을 발산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몸의 윤곽선을 그리는 활동은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동료와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2) 선택활동2-나를 특징짓는 것

〈표 10〉 활동② 나의 상징

수업목표	·나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찾아 캐릭터나 심볼을 만든다. ·나의 상징을 활용한 명함이나 엽서 등의 응용물을 만든다.
학습자료	PPT자료, 필기도구, 아이디어스케치북, 도화지, 포스터칼라, 채색도구
수업내용	◎ 제작 순서 1. 자신을 잘 표현하는 특징을 찾는다. 성격, 별명 등을 활용한다. 2. 다양한 형태를 단순화시켜 그린다. [예시안]  심진호(학생 작품) 3. 색상의 의미를 고려하여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색상타입을 상징물에 대입한다.

[참고]

붉은색	관용, 사랑, 순교, 신의, 용기, 외향적, 적극적
분홍색	활기, 애정, 책임, 사랑받고 싶음, 몸의 건강
주황색	에너지, 성과, 식욕촉진, 사교적
황토색	영광, 힘, 부, 상쾌, 찬란, 가슴설렘, 즐거움, 우유부단
갈 색	안정, 강한 욕구, 차가운 성향
녹 색	신앙, 불멸, 희망, 성결, 영원한 젊음, 애정, 상담, 도움
청 색	성실, 신앙, 믿음, 신성함, 책임, 정신
자주색	존엄, 정의, 고귀, 위엄, 관능성, 화려, 내성적, 예술가적

4. 캐릭터는 깔끔하게 채색한다. 마지막에는 검은색 물감으로 배경을 정리한다.

5. 완성된 캐릭터를 이용하여 편지지나 명함, 티셔츠를 만든다.

◎ 교사는 학생들의 작업과정을 수시로 기록한다.
◎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및 구상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찾아본다.
◎ 참고-교학연구사 p.130, 지학사 p.142, 일진사 p.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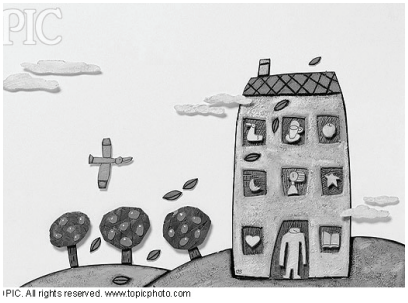
활동②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자신을 한두 가지로 특징짓기 위해 외모와 성향을 작은 것부터 주의 깊게 살피게 되고 이에 따라 표현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소'가 특징이라면 입꼬리를 위로 올리고 '놀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눈을 번쩍 뜨이는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개인의 '개성'을 형성시킨다. 이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고 성향을 우열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하게 된

다. 따라서 스스로를 알아가고 자신을 타인에게 피알할 때에 긍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막연한 것이나 허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수업은 맥락적 차원에서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3) 선택활동3-나와 주변사람의 관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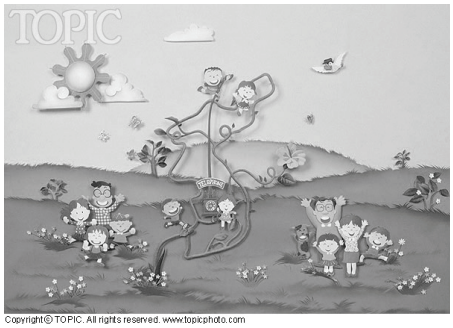
〈표 11〉 활동③ 나의 일촌

수업목표	・나와 주변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를 조형적으로 나타낸다. ・각자의 개성이 어우러져서 전체가 조화됨을 배운다.
학습자료	PPT자료, 필기도구, 도화지, 색종이, 헝겊, 채색도구, 풀, 가위 등
수업내용	◎ 제작 순서 1. 교사는 배경이 되는 큰 그림을 제공한다. 그림은 지도나 마을, 건물, 숲 등 하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되도록 한다. 단 배경은 너무 현란하거나 튀는 것이 아닌 큰 테두리를 제시하는 정도면 좋다. 2. 학생들은 제시된 큰 공동체 이미지 안에 자신의 자화상을 제작하여 붙인다. 여기서의 자화상은 상황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만들면 더욱 좋다. 공간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무슨 동작을 취할 것인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지 등을 생각하여 표현한다. 도화지에 따로 그려서 오린 다음 배경그림에 붙이도록 한다. [예시안]



PIC. All rights reserved. www.topicphoto.com

Copyright© TOPIC. All rights reserved. www.topicphoto.com



Copyright© TOPIC. All rights reserved. www.topicphoto.com

3. 자신을 표현할 때는 단독으로 그려도 좋고 동료들과 의논하여 그려도 좋다.

4. 전체를 한 단위로 아우르는 방식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벽화, 게시판 정보, 가림막 등)

◎ 교사는 학생들의 작업과정을 수시로 기록한다.
◎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및 구상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찾아본다.

활동③은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는 '내'가 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상호작용 함으로써 형성되어 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큰 테두리 안에 나를 표현하며 '공동체', '구성원' 등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며 동료들을 의식하며 조화롭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인식하도록 하여 전체를 통찰하는 가운데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도록 한다.

5) 정리 및 평가

작업을 마무리시키고 작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참고자료-교학사 p.186, 두산동아 p.184,185)

작품을 만든 학생이 발표를 하기 전, 동료들이 작품과 발표자를 비교하며 작품을 분석하고 궁금한 점, 확인하고 싶은 점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는다. 다른 친구들은 발표자의 작품에 대해 각자 질문 3가지 정도로 질의응답을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한다. 동료들의 분석이 끝나면 발표자는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 작품의 의도나 주제, 방법 등을 설명하고 다음 발표자를 선정한다. 감상·분석 활동을 통해, 이미지는 문자 언어가 아닌 현실과 상황을 조형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자신이 전달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음을 배운다. 발표시간에 참여하는 방식은 교사의 의도와 학생의 입장이 잘 조화되도록 조절하고, 경우에 따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자신의 내용을 공유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다. 조율과정을 통해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지켜줘야 하는 원칙과 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화상 창작활동 수업은 학습내용의 도달 정도를 수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서열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학습자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능력을 표출하고 자아를 스스로 수용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측면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수업에서는 학생과 동료, 교사가 상황에 맞게 관찰, 감상문, 토론,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활동을 마친 학생은 작품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점검표와 소감을 작성하도록 한다. 학급 구성원들은 서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동료 간에 감상, 비평 활동을 한다. 최종적으로 교사는 이 내용들을 수합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교사의 공통평가시 객관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평가표를 사용한다. 평가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을 나누어 문항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가 적절하고 타당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작품, 즉 결과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동기, 과정, 태도 등 지속적인 관찰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가능한 한 서술을 첨부하고,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작성하는 작품 보고서는 자가평가의 자료로써 전체평가의 40%를 반영하고, 동료평가는 20%, 최종적으로 교사평가가 40% 반영되도록 하였다.

〈실기 수행 평가표〉

<표 12> 자가평가

<table>
<tr><td colspan="4">자화상 그리기 ○○중학교 2학년 ○반 이름 ○○○</td></tr>
<tr><td>재 료</td><td></td><td>작품 크기</td><td></td></tr>
<tr><td colspan="4">1.나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td></tr>
<tr><td colspan="4">2.나를 특징짓는 형용사</td></tr>
<tr><td colspan="4">3. 나의 자화상</td></tr>
<tr><td rowspan="3">감상소감</td><td>학생</td><td colspan="2"></td></tr>
<tr><td>동료</td><td colspan="2"></td></tr>
<tr><td>교사</td><td colspan="2"></td></tr>
</table>

<표 13> 동료평가

반	번호	이름	좋았던 점	개선할 점

<표 14> 교사평가

( )학년 ( )반 ( )번 ( )조 이름 ( )

구분	평가내용	점수 (5 4 3 2 1)
주제 이해	**미적체험 : 관찰력, 이해, 적용, 발표력, 태도 등** ·작가들의 자화상 작품을 관찰하고, 인물의 성격과 외모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용된 재료와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작품 제작 활동에 응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표현 방법 및 과정	**표현 : 표현력, 상상력, 관찰력, 재료 및 용구의 선택과 활용, 창의성, 심미성, 실용성, 이해의 적용, 태도 등** ·자신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재료와 기법을 선택하였는가? ·현재의 생활 모습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특징 있게 잘 나타났는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조형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하였는가?	
감상 및 태도	**감상 : 지식, 이해, 적용, 분석력, 판단력, 발표력, 태도 등** ·준비물을 잘 갖추고 수업 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는가? ·활동내용과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는가?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에 협조적이었는가? ·결과물을 감상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Ⅳ. 결론 및 제언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갈구하는 것은 그 안에 가장 이상적으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라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연유이다. 빠른 속도로 환경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달리 자연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준다. 감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런 조건에 가장 흡사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 예술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미술이다.

자화상이라는 것이 이미 많이 다루어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자신을 정립하도록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청소년기에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에 비해 사회에서 다루는 청소년 대상의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유아나 아동 대상의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자화상 창작 수업 방안을 구안하고자 우선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을 검토하고, 아울러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다.

청소년기의 특징들은 여러 학자들이 정립한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유아기 이후 가장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자아개념, 대인관계에 중요한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생활 감정이 발달하여 정서적 굴곡을 느낀다.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게 되며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러한 과도기의 갈등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자화상 창작활동은 대단히

효과적인 제재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새로이 개정된 교과과정을 반영한 9종의 미술 교과서는 각기 개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알차게 구성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에 자화상이 언급된 것은 자아를 정립하는 학습이 중요함을 인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교육을 강조하고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을 권장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질과 역량이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의 발달 단계와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미술 수업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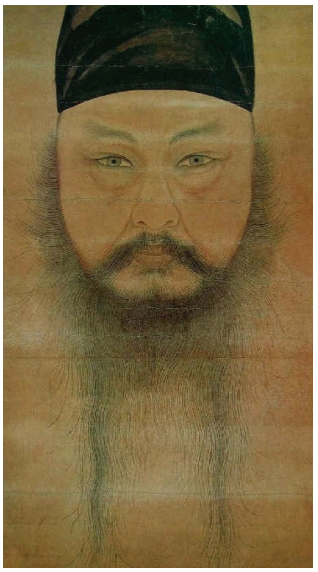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각자의 실생활과 연결 짓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자화상 수업 방안을 구안하였다.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위한 공통 수행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선택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선택활동은, '나의 내면의 모습', '나의 상징', '나의 일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각 수업은 주제와 표현방법이 각기 달라 상황에 맞는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자화상 창작 수업 활동은 단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기라는 특정 시기에 걸맞는 자아 형성의 작업으로까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청소년의 욕구를 올바로 채워주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잣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자기를 잘 알고,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 올바른 성인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또 자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과 같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화상 창작 교수-학습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아성찰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효하다 사료되며, 따라서 향후 미술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도 판

<도판1> 렘브란트 젊은 날의 자화상(유채/30.9×38cm/1629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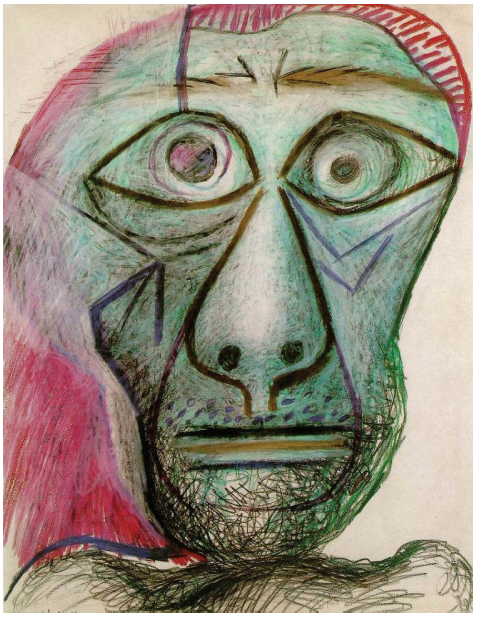
<도판2> 렘브란트 사도 바울로 분장한 렘브란트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91×77cm/1661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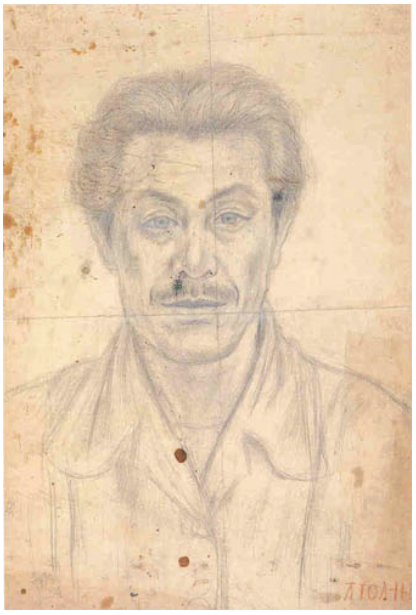
<도판3> 윤두서 자화상(수묵담채/38.5×20.5cm/18세기)

<도판4> 뒤러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목판에 유화/67×48.7cm/1500)

<도판5> 엘리자베스 뷔제 르브룅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자화상(캔버스에 유채/98×70cm/1782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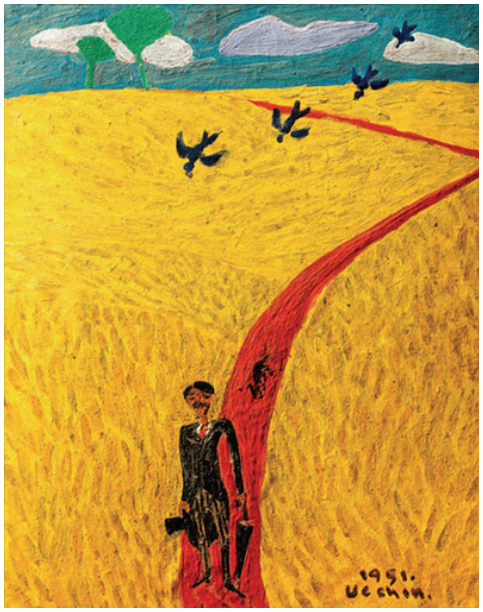
<도판6> 피카소 자화상(종이에 왁스 크레용/625.7×50.5cm/1972년 작)



<도판7> 이중섭 자화상(종이에 연필/48.5×31cm/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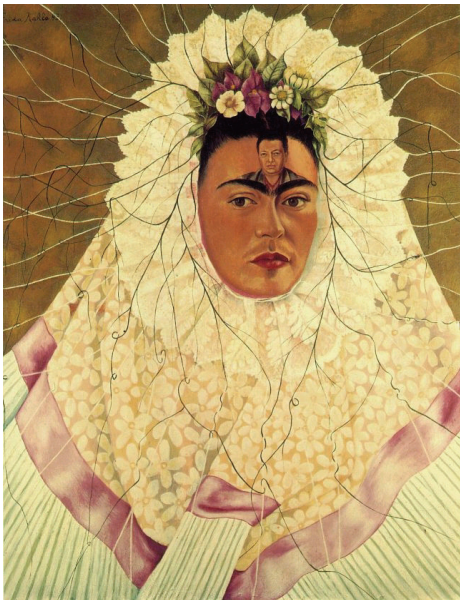
<도판8> 김명국 죽음의 자화상(은사도 隱士圖)(지본수묵/60.6×38.8cm/?)

<도판9> 이쾌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0×72cm/1948 ~ 49년경)



<도판10> 장욱진 길 위의 자화상(종이에 유채/14.8×10.8cm/1951)

<도판11>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종이에 채색/43.5×36/1977)



<도판12> 칼로 내 마음 속의 디에고(유채/76×61cm/1943)

참 고 문 헌

〈단행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미술』

노재우 박용숙 교수 외 18인. 교육과학사 발행 회갑기념학술논문집Ⅱ 『한국의 미술교육 과제와 조형예술학적 접근』 서울: 예경, 2000.

문찬 외 4일 공저. 『기초조형 Thinking』 서울: 안그라픽스, 2010.

박휘락.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 교육』 서울: (주)시공사, 2003.

손정숙. 『예술과 웰빙』 서울: 만남출판, 2004.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1999.

유홍준, 『화인열전1』 서울: 역사비평사, 2001.

이승건. 『미술특강』 서울: 미술문화, 2004.

임승권. 『교육심리학』 서울: 양서원, 1990.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서울: 예경, 1996.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1998.

Alexander Sturgis / 권영진 역. 『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7.

Lawrance Kohlberg, 『Stages of moral development as basic for moral education』 E,M. Beck and E.V. Sullivan(ed.) N.Y.:New Man Press., 1971.

Lowenfeld. 서울교대 미술교육연구회 역,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1993.

〈논문〉

김승익, 「2009 개정 교육과정!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 2010.2.

배수옥, 「포토샵을 활용한 자화상 지도방안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4.

사미자,「인생주기 이론에 비추어 본 청소년기」『기독교 사상』, 5월호. 1988.
심재숙,「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2.
유수정,「자화상을 통한 자아의식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 석사논문, 2003.
이경희,「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자화상 지도방안」. 국민대: 석사논문, 2003.
이주현,「화가의 자화상」『미술사연구』, 제20호. 2006.
이한나,「자화상으로 표현된 심상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5.
임은미,「인간발달과 성」성교육성상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0.
정영인,「방어기제 관점으로 본 페미니즘 작가 자화상의 자아치유 요인 연구」,『한국 디자인포럼』, 제22호. 2009.

〈교과서〉

고승혜 외.『중학교 미술』서울: 두산동아, 2010.
김용주 외.『중학교 미술』서울: (주)지학사, 2010.
노영자 외.『중학교 미술』서울: (주)교학사, 2010.
이성도 외.『중학교 미술』서울: 교학연구사, 2010.
조중현 외.『중학교 미술』서울: 미진사, 2010.

〈신문기사, 인터넷〉

이원희,「교육에서 행복찾기」『중부일보 오피니언』. 2010년 1월 22일자.
정민영,「이쾌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파이낸셜뉴스』. 2007년 3월 15일자.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검색일자: 2010년 3월 9일)
리브로 웹진 부커스「자화상이란 이름의 자서전」http://www.librodvd.co.kr/Webzine (검색일자: 2009년 4월 11일)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백과사전. www.britannica.co.kr. (검색일자:2010년 3월 16일)
토픽포토 www.topicphoto.com

ABSTRACT

The Class of Producing self-portrait Based on the Exploration of the self-identity

Park, Ji-won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Art education is the integrated emotional activities that are developed creatively through formative activities in association with inner thoughts and feeling of learner.

On account that art reflects, records, and passes down the culture of human beings, we can understand our past and current culture, and furthermore, we can develop our future more creatively. In addition, art education in school put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in discovering the latent talent of individuals and help them cultivate their humanity through various activities of art, instead of training art specialists. The purpose of art education that is performed by the school is to cultivate holistic men who can understand and develop themselves based on attitudes that perceive beauty and enjoy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Meanwhile, adolescents experience the confusion of their identity,

and want to know who they are and what's their role at home and community. In order to overcome these conflicts, adolescents need to establish their self-identity. Self-identity internalizes and forms the world of self continually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this sense, the creative activity of self-portrait in the art school helps adolescents establish their self-identity healthily by transferring the emotional confusion into right values and subliming it.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the class of producing self-portrait based on the exploration of the self-identity for reflecting this class in the life of students. Particularly, it provides adolescents with meaningful art experience rather than the emphasis of specialized function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personal growth of adolescents. Various self-portraits of artists were presented for appreciation ahead of practice in order to make adolescents aware that inner side as well as appearance is contained in the works of artists, and understand that image is the method of representing circumstance and thoughts with picture in contrast to letter.

This study aims at objectification of adolescents themselves through the experience of producing self-portrait for communication with others. In addition, it intends to encourage adolescents to manifest themselves with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or express themselves by connecting themselves with meaningful objects. After production activity, instruction method to perceive the situation more

objectively and expanding thoughts more broadly was planned throug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ith colleagues.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sense of accomplishment about the works, finished through activities, will boost their confidence, and the remedies that are drawn from activities will be a foundation for the self-refl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oughts.